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상설 운영 ... 야시장 활성화

월 6회 개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특화된 먹거리·다양한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

흑염소·다슬기·검은콩 등 21종 블랙푸드 판매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이 야시장의 호응과 그간 구축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특성상 장날(3일·8일)에만 개장돼 월 6회 장이 열리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시장을 통해 관공객을 불러모아 궁극적으로는 매일 여는 상설시장으로 기틀을 마련한 결과다.

화순군(군수 구충근)은 27일 내년까지 총 18억원(국비 9억원·군비 9억원)을 투입해 특화된 먹거리와 상품개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1964년 현 시장길 44번지로 이전, 반세기 역사를 가진 화순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화순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해 소비자에게 문화와 재미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장복수·이하 육성사업단)이 중심이돼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1단계인 상설화 준비단계를 지나 올해 2단계 상설화 확산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개장해 매주 금·토요일이면 오후 6시부터 운영되는 야시장은 매회 수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자노릇'을 하면서 상설화 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야시장 개장 이래 현재까

지 10만여명의 관광객이 왔고 4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야시장의 이 같은 인기 비결은 젊은세대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저렴하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가득한데다 각종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야외무대에서 인디밴드와 듀엣 보컬 등 각종 무대공연이 열리고, 천연발효식

초, 꽃송이버섯 등 화순의 농산물과 주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인근 광주 동구와 남구에 거주하는 20~40대 젊은층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여기에 '도심속 국화 향연'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행사 유치와 지역을 대표하는 '블랙푸드(black food)'음식 개발에 맛을 더한 것이 주효했다. 육성사업단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상인회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흑염소, 다슬기, 검은콩, 검은쌀 등 검은색 식재료를 이용한 산약초등갈비찜, 검정깨 호박전, 흑염소탕 등 21종의 블랙푸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복합센터와 주차장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착각 진행 중에 있다. 14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시장 내 주차장 연결 증축공사는 마무리됐으며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주차장 신축공사도 시작했다. 청년몰, 놀이방 등이 들어설 복합센터는 총 17억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완공이 되면 분양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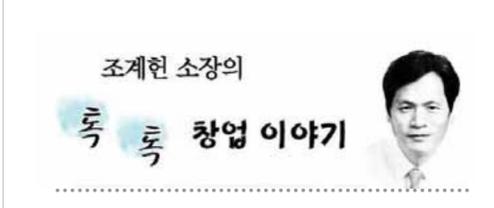
화순군은 화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거쳐 오는 2017년 시장 상설화를 통해 전년을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키워내려는 계획이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시장 상설화를 앞두고 개장한 고인돌전통시장 야시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늘면서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다"며 "상설화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충근 화순군수 /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이 야시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광객을 불러모아 궁극적으로는 매일 여는 상설시장으로 기틀을 마련했다. 사진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야시장 먹거리 장터.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제공>



사회적 이슈 많았던 창업시장

2016년은 기존 자영업자에게도 신규 예비창업자에게도 여러 모로 힘든 해였다. 애초 장기불황이라 2016년 역시 생존경쟁이 치열하여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까지 연달아 발생하다 보니 시장이 더 불안정해져서 가뜩이나 성패에 대한 불안감이 큰 예비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비록 좋은 의미로 제정된 법이고 개인적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장적용 과정까지 어느 정도 시장이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됐던 김영란법의 시행을 필두로 '최소실국정농단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서 상처받고 분노한 국민들이 떨리는 손으로 지급 대신 환불을 꺼내드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소비시장은 마침내 공포의 늪에 빠졌다. 거기에 실상가상으로 연달아 불어닥친 조류독감(AI)까지 겹쳐서 접하고 나니 창업시장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창업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기불황 상황에서 창업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3가지 축은 가격과 과외와 저가형 아이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창업아이템이었다. 올해도 역시 이 흐름은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중심축은 경기불황 상황을 반영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선전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아니었다 싶다. 물론 저가형 아이템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손님이 제법 봐도 몰판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카페나 고급음식점 창업을 제외하고는 고급 마감자재로 승부를 보는 고급화 추세보다는 평당 시설비 부담이 최소화된 디자인과 조화를 중시해 둔 저비용 스타일의 알뜰형 인테리어가 대세인 상황이었다. 물론 그림에도 시설비는 물가인상률보다는 올랐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기반을 둔 로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수도권에 밀집된 전국구형 본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한해가 아니었다 싶다. 예컨대 향후 지역연고로 인한 인적자산, 불류비용 절감, 빠른 가맹점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무기로 로컬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약진은 더욱더 강하게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로컬프랜차이즈의 경우 아직은 신규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본사를 보다는 뜨는 업종을 빠르게 캐피하는 미투브랜드 전략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신규 아이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병행해야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16년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참여 부족에 관한 부분이다. 본인이 여태 해온 일도 아닌 전혀 새로운 분야로의 창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창업준비 코스 같은 것이 창업교육임에도 대부분의 창업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필자가 재정당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교육중간에 교육생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진직 창업교육을 이렇게 자주 받고 창업을 했다더라면 그렇게 쉽게 실패는 안했을텐데 라는.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고용 감소에 1인 청년가구 자영업자 비중 급증

지난해 1인 남성중 12.2%

1인 청년가구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최근 수년째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청년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실린 전북대 문성만 교수의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12.2%였다. 이는 2006년 7.4%에서 4.8%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 기간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87.3%에서 75.0%로 하락했

다. 여성도 74.6%에서 71.3%로 내려갔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사업소득 비중은 2006년 7.8%에서 2015년 약 2.4배인 18.9%로 뛰었다. 여성 역시 10.5%에서 두 배 이상인 21.9%로 급증했다.

문성만 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소득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의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제조업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 영향으로 지난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년 전보다 0.1%p 상승한 8.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기업가 창업자 모집

28일부터 4차례 사업설명회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내년 1월 13일까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팀)를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적 기업가로서 자질과 사회적기업 창업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공간과 전문적인 경영지원 및 사업비(팀당 최대 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성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법인설립 후 1년 이내) 등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28일부

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 학습관에서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1월4일은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1월5일에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I-PLEX에서 진행한다. 이어 1월15일에는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육성 사업 위탁운영기관 소개 및 담당자 소개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개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 방법 안내 ▲창업아이템 및 BM 등 멘토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seis.or.kr) 또는 062-384-4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적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갤러리 봄 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 대표 최정화 ☎010-9078-1800	튼튼동물병원 동구 계림동 이마트상가층 각종 백신 및 미용 중성화수술, 호텔 각종애완용품 취급 전문 ☎062)511-7582, 010-3263-758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6·92 (육구이) 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성숯불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장 배달전문점 ☎062)464-0692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원형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남원가정식추어탕 동구 호남동 73번지 (파레호텔 앞) 건강하고 행복한 상차림 대표 진화현 ☎062)226-0911	국수나무옹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정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우청미술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성수 ☎062)383-8408	행복공인중개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원 개인단체 환영(강의내용: 사주, 음력, 양력, 사주학, 수지학, 수축점, 이침)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단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요식업 친환경화구 관리하기 불편한 일체형화구 가스다이에서 뚜껑이 분리되는 친환경 화구로 교체 대리점 하실분 환영, 유사품주의 ☎010-4607-1512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